

‘느림’마저 빠르게 유행하는 얇은 문화풍토

‘느림’에 관한 책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

홍기돈 | 문학평론가

2000년대 출판시장에 느림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느림을 표방하고 나온 책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순간의 위로는 될지언정 일상생활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 느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인문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느림을 인생관이나 세계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한 방편으로 이해해야 한다.

1840년경 프랑스 파리에서는 ‘거북이 산책’이 잠시 유행했다고 한다. 마치 영화 속 서양인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듯이, 당시 거리를 산책했던 이들은 엉금엉금 기는 거북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거리 산책자들의 걸음은 거북이가 기는 속도에 맞춰졌다. 그러나 달팽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방금 뭐가 지나갔나?” “몰라. 워낙 순식간의 일이라”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대화하는 거리의 속도감을 염두에 둔다면 거북이 산책에 나선 이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느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아마도 그들은 느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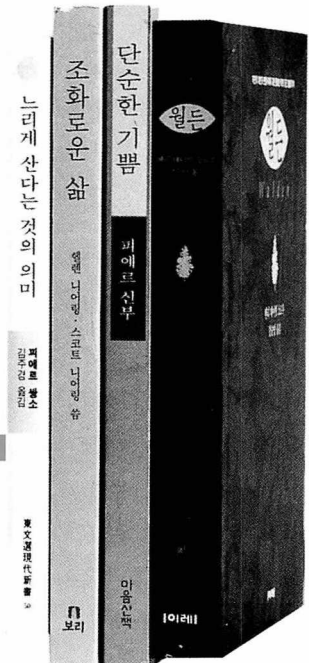
거북이 산책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보들레르에 관한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에서 발터 벤야민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빈둥거리는 일은 집어치우자”는 표어를 들고 나온 테일러가 득세했기 때문이다. 빠름을 추구하는 근대의 속성 앞에서 느림의 추구는 그렇게 밀려나게 됐다. 대략 160년 전 일이다.

서울 거리의 거북이 산책자들

출판시장에서 느림이 하나의 유행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거북이를 데리고 거

리를 산책하는 1840년경의 프랑스 파리가 연상된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2000년대 한국의 휘황찬란한 거리에서 거북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일까. 물론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또 하나의 테일러가 돼서 “빈둥거리는 일은 집어치우자”고 비판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의아스럽지 않은가. ‘느림’의 ‘유행’이라니. 혹시 느림이 유행하는 것은 공허한 내면을 숨기기 위한, 혹은 스스로 위무하기 위한 치장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느림이 값싼 치장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인문학이란 시간을 견디면서 시간과 더불어 내면이 깊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시간 속에 아로새겨진 인간의 무늬(人紋)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싸안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느림의 긍정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인문학 관련 서적이 판매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유독 느림을 다룬 서적들만이 하나의 유행을 이룬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느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인문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느림의 유행에서



과연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김용석은 <깊이와 넓이 4막 16장>(휴머니스트)에서 느림의 유행에 대해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먼저 피에르 생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동문선)라든가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보리), 소로우의 <월든>(이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단언한다. “느림, 자연 회귀, 단순한 삶 등은 디지털, 인터넷, 세계화, 정보 전쟁, 지식자본, 무한 경쟁 등으로 특징지어진 현대 문명의 일상적 삶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그들을 서민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에게는 순간의 위로는 될지언정 일상생활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니어링 부부에게는 학식과 명망으로 인한 강연 요청과 인세 수입이 있었고, 19세기의 소로우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 덕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의 삶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 부를 축적해놓은 부류

에 한정된다. 김용석은 이런 사실을 환기시키며 '서민이 과연 니어링 부부처럼, 소로우처럼 살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느림의 유행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다. 느림의 긍정이란 단지 느림의 찬미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일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느림의 유행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

느림은 일상적 삶의 한 방편일 뿐

주지하다시피, 존재론적인 입장에 바탕을 두고 삶의 태도를 말하는 지식은 삶과 괴리될 경우 상당히 공허해진다. 그것은 지은이의 잘못이 아니다. 삶을 둘러싼 조건과 연관되는 문제이기에, 책 속의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인문학의 힘이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데서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유행으로서의 느림에서 1840년경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졌던 거북이 산책자들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제스처 혹은 교양의 과시 정도에서 이미지가 겹쳐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문제는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는 사회의 문화적 수준 역시 관계하게 마련이다. 김용석의 입장에 기대 《조화로운 삶》과 《윌든》을 얘기한 김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둘러싼 현상에 대한 그의 평가까지 소개한다. 그는 느림이 느림의 의미를 잃고 오히려 빠르고 획일적인 분위기를 동반하게 되는 우리의 부박한 문화 풍토를 비판한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인 두께가 느껴진다.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 원죄가 ‘느림의 선용(善用)에 대하여 (du bon usage de la lenteur)’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느림을 잘 이용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생활 방식들을 잘 이용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현대인이 추종해야 할 인생관이나 세계관으로 물고가는 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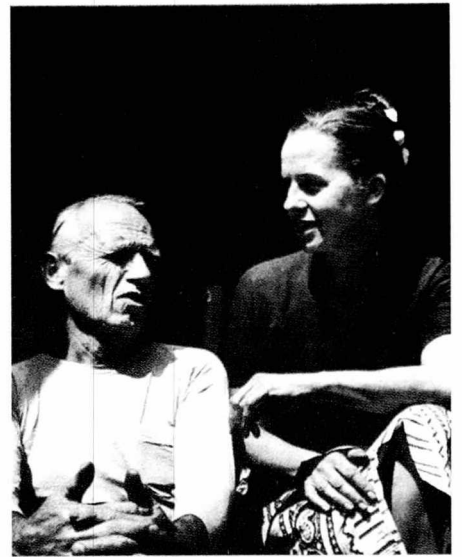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류를 틈타 다시 한번 ‘자연 회귀’를 지성인들도 훈계하듯 외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빠름의 반대가 과연 느림일까. 삶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빠름이란 시간을 의식해야만 가능해진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보다 빨리’ 무언가를 습득하고,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경쟁은 언제나 직선적 시간의식 위에서 펼쳐지게 된다. 우리의 삶이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속도감에서 기인한다. 물론 경주마처럼 눈가림을 당한 채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이들은 이 피로감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반면, 느림은 시간 자체를 잊어야만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시간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이라면 굳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 느리게”라는 비교의 관점은 이미 느림을 벗어난 입장에 불과하다. 빠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뒤집어 보여줄 따름이다. 그러니 느림/시간에 집착하는 느림의 예찬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1840년경 파리의 거북이 산책이 한낱 보여주기의 차원에서 유행하다가 사라진 이유는 여기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느림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목적을 잊을 수 있어야 한다. 삶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뭇잎의 무늬를 빚어가는 것이며, 바로 그 시간의 흐름이란 ‘과정’을 통해 인간은 확정된 목적을 끊임없이 유보시켜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피에르 쌍소는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죽음과 늙음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기로 했다.”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눈에 쉽게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만년모습. 이들은 버몬트 오지에 농장을 마련하고 느림을 실천하며 산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학식과 명망으로 인한 강연 요청과 인세 수입 때문이었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어떤 뚜렷한 형상으로 채워두고 싶은 유혹에 이끌리곤 한다. 말하는 자는 단지 수단으로 형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 형상이 중심에 놓이는 전도(顛倒)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다. 유행으로서의 느림은 그 전도 사이의 격차를 비집고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느림을 얘기하자면 유유자적 버리고 가는 연습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먼저 형상을 버리고, 느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버리고 나서도 남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목소리, 삶의 의미가 아닐까. 무료하고 쓸쓸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윤택함을 채색하는 것은 기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긍정 아닌가. 《단순한 기쁨》(백선희, 마음산책)에서 조르주가 피에르 신부에게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고 고백하듯이, 자신의 삶을 밑바닥부터 성찰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물음 그 하나만 남더라도 이미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때 느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홍기든씨는 중앙대 국문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비평과 전망》 편집동인으로 활동중이며 중앙대, 강원대 등에 출강한다. 평론집 《페르세우스의 방패》를 펴냈다.